華燭

■ 金大洪代議員님의 五男 東祚宗親은 김공익씨의 장녀 김정숙양과 95年 10月14日 중랑구 구민회관에서 백년가약을 맺었다.

■ 本會 副會長 金文載宗親의 長男 宰鏞君은 3월 23일 토요일 12시 30분 시내 「상계리젠 웨딩홀」에서 김용제씨의 장녀 보희양과 백년 가약을 맺었다. 두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원한다. (一無)

壽筵

■ (回甲) 金炳和 理事께서는 95年 11月24日 回甲을 맞이하여 대림동 정현프라자 3층에서 長男 명균과 次男 성균이 베푼 수연잔치를 성대히 열고 헌수하였는데 이자리에는 친척, 친지등이 많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 金志燮 本會 理事(前保寧市 議員)는 昨年 11月26日 부인(藍浦 白춘기)과 함께 回甲을 맞이하여 미산면 봉성리 自宅에서 長男 基錫을 비롯한 五男 三女의 헌수를 받았다. 축하합니다. (一無)

古稀

■ 서울 市 노원구 상계9동의 金仁載宗親은 지난 11月25日 중계동 건영옴니백화점 5층 「장미홀」에서 부인(郭聖根女史)과 함께 古稀를 맞이하여 壽宴을 열고 家族과 親戚, 親知들의 祝福속에 長男 承鏞을 비롯하여 四男二女의 헌수를 받았다. (一無)

訃音

■ 서울 普門洞에 사시는 金正植 宗親은 七旬을 맞이하여 三月十日 十二時 미락부페에서 부인 慶州 金願順女史와 함께 長男인 炳宰를 비롯한 二男三女의 獻壽를 받으며 古稀宴을 盛大히 올렸다. (一無)

■ 本會 理事인 金軒載(利川郡建設課長)宗親은 1995年 10月25日 公務執行中 殉職하여 郡民葬으로 10月27日 大月面 郡梁一里 무우정마을 先塋下에 安葬하였다. 유족은 부인 英陽金春榮女史와 長男 庚鏞을 비롯한 一男三女이다. 삼가 명복을 비는 바이다. (一無)

■ 金炳韓宗親의 夫人 白川趙良錫氏는 老患으로 이천시 대월면 군량1里 自宅에서 9月19日 七十九세를 一期로 別世하여 二十一일 무우정 선영하에 安葬하였다. 유자녀는 運載、鵬載와 在順、在淑등 二男二女가 있다. 삼가 명복을 빈다. (一無)

■ 南岡 俊永宗親 별세
忍百堂公의 12代孫인 南岡 俊永宗親께서는 1995年 11月30日 午前 11時 시내 상계동 백병원에서 79세를 1期로 老患으로 別世하셨다.
12月2日 閨慶郡 加恩邑 瀟陽洞 先塋下에 安葬하였는데 유족으로는 長子 秉兌등 三男三女가 있으며 일직이 暎流亭重修를 主管하여 完工 하였으며 本會의理事와 總務幹事로서 宗親會 發展에도 寄與한바 크다.
本會에서는 12月1日 仁熙宗務幹事와 東昌財務幹事、炳鎰 고문등이 弔問하여 故人의 冥福을 빌었다. (一無)

■ 金益載宗親의 慈堂이신 咸陽朴氏께서는 지난 2월14일 오후 8시 30분경 城南市 自宅에서 80세를 一期로 별세하였는데 16일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 무우정 선영하에 안장하였다.
유족은 益載를 비롯하여 三男三女가 있다. (一無)

■ 本會 金都淵理事의 父親이시며 金深淵理事의 叔父이신 商學公께서는 三月十日(음一月二十一日) 일요일 城石里765번지 自宅에서 79세를 일기로 별세하시니 부인 漢陽趙氏와 長男 奉淵등 五男一女의 哀悼속에 三月十二日 城石里 先塋下에 安葬하였다. 삼가 冥福을 빕니다. (一無)

宗睦會 定期月例會

宗睦會(會長 金槿熙)에서는 1月24日 午後 6時 中央宗親會 會議室에서 定期月例會를 開催하고 親睦을 다졌다.

이자리에서는 中央宗親會 運營經費調達策等을 論議하였으나 別다른 方策이 決議된바 없으나 未納會費收納에 힘쓸것을 執行部에 建議키로 하였다. (一無)

本報 編輯委員長인 一無 炳鎰宗親은 宗報 12號를 끝으로 委員長職의 辭退를 表明하였다.

一無 종친은 中央宗親會가 創立한 以來로 七年間이나 높고 낮은곳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宗親會務에만 專念하였고 宗報가 發刊되면서 創刊號부터 編輯事務에 心血을 기우려 왔으나 近間에는 體力의 減退와 身恙도 심상치않아 종보 12호의 發送事務가 끝나는 이달 末日을 期하여 辭退할것으로 본다.

이로서 「宗報編輯委員長」을 비롯하여 「常任顧問」과 한시적인 「同源齋 都監」도 사임한다니 섭섭한 일이다.

그간의 勞苦를 치하하는 바이다.

中央宗親會

대 성 상 사
(427호)

社長 金 深 淵

서울 종로구 창신동 437
전 화 : 744-4890
766-3648
자택전화: 766-5233

中央宗親會 理事
牧使公派宗會 會長
裏景公派牧使公14代孫

中央宗親會 任員手帖 配布

中央宗親會에서는 會長團會議와 理事會議의 議決을 거쳐 任員(顧問、會長團、幹事長、監事、幹事、理事、代議員)手帖을 製作配布하기로 하고 그간 任員님들의 協助아래 모든 資料를 수집하여 드디어 2월15일자로 印刷에 들어가 2월29일자로 發行하게 되었습니다。

表紙는 高級비닐에 금박인쇄로 50切 크기에 미색모조를 써서 無線製本으로 하였습니다。

手帖의 內容은 會則을 첫머리에 넣고、다음으로 宗族와 그뜻을 詳細히 說明하고 다음에는 任員構成表를 插入하고 任員錄에는 各自의 寫眞을 넣어 이름만이 아니라 피차의 얼굴도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하였으며 其他 附錄으로 先祖配享院祠、一覽表와 先祖時享日을 그리고 日常生活에 흔히 쓰이는 常識問題등의 參考資料로 慶弔文書式과 결혼기념일、공휴일 및 행사표、地域電話番號等을 곁들여 總108面을 任所錄으로 마감하였습니다.

製作費用은 總六百卷 印刷費가 2百50万원에다가 其他附帶費用20万원(手帖 送料除外)을 合하면 2백70만원이 所要되는데 任員總數가 2백90名 임으로 任員1人當 1卷에 1万원式을 내시고 殘餘分은 2千원式에 배부하여 送料除外하고도 돈이 남으면 다른 費用에 充當하기로 會長團및 幹事會議에서 合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傳達方法은 各地域別로 한데모아서 傳達하는 방법을 강구중에있아오나 各自좋은 方法이 있으시면 電話또는 書信으로 連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孝行·善行 宗親을 찾습니다。

中央宗親會에서는 孝行과 善行으로 우리 門中을 빛내고 社會에 模範이 되고있는 宗親을 널리 찾고있습니다。

우리 門中이 孝行과 善行을 行함에 앞장서고 있는 家門임을 宗報에 계재하여 널리 弘報하고자 하오니 주변의 美談을 書面 또는 電話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編輯室)

수필 한마당 계

몇일전에"한마당 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전북 군산에 다녀 왔다. "한마당 계"하면 쉽게 이해가 안되리라 생각한다. 쌍동이도 세대차가 난다는 소리를 젊은이 들로부터 많이 들어왔다. 지금은 핵가족으로 젊은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6.25당시만 하여도 한집에 4대 또는 8촌까지 모여 사는 대가족제도 였다.
필자가 지금 가슴 아프게 느끼고 있는 것은 5촌 6촌간 친척들의 얼굴을 잘모르고 지내기가 일수다. 정말 이럴수가 있을까? 동방예의지국가로써 부끄럽기 한이없다. 아무리 세대의 변화라고 하지만 어찌 한 혈육을 같은 친척들도 모르고 지내고 있을까? 생각끝에 "한마당 계"를 만들어 보자고 서로의 의견을 같이하여 4촌 - 8촌 까지의 "한마당 계"를 만들었다. 직장따라 배움따라 8도에 흩어져 생활하는 친족들이 1년에 두어번씩이라도 서로 상면하고 대화의 기회를 갖는 것이 어른들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말 "한마당 계"는 기쁘기만 하다. 제일 어른으로는 70세가 넘은 분부터 아래로는 어린이들까지 한데 어울리어 즐거움을 찾는다. 50여명의 준비된 음식에 버스까지 대절하여 노래하고 춤추고 장기자랑하고 하루를 즐기는 그 진가는 온국민에게 널리 자랑하고 싶다. 거리감 없는 대화, 모이면 지난날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시골에서 살면서 그때만 해도 부잣집답게 남들이 없는 축음기(유성기)를 틀어놓고 한마당 가족이 즐기던 그시절,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이 가는줄 모르고 옥수수를 삶아먹고 밀가루 떡을 먹어가며 마냥 즐거웠던 그 시절 그때를 회상하며, 아이들에게 "조상의 얼"을 심어주며 한마당 계는 마냥 즐겁기만 하다.
군산에서 하구둑, 몽산포 해수욕장, 대천 해수욕장, 어항등을 버스로 관광하며 웃고 노래하고 손뼉치고 흥겨운 장면을 녹화하여 TV방영이라도 하고 싶다. 우리 "한마당 계"자랑을 말이다. 지금 사회는 인색하여만지고 인정은 메마르고 신문 사회면을 보면 재산을 노리는 친척간의 갈등, TV뉴스도 보노라면 각종 불륜의 사건 사고만 나열하여 사회를 더욱 어둡게 만들지 않은가! 좀더 밝고 건전한 사회면을 보도하고 방영한다면 우리 사회는 건전하게 변화가 오리가 믿는다. 우리 "한마당 계"가족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웃음꽃을 피우고 이러한 "가족의 회"가 하나둘 늘어만 갈때 우리 사회는 밝고 명랑한 사회로 변모하리라. 필자는 "한마당 계"를 맡아 추진하면서 많은 것을 새롭게 배웠다. 남을 헐뜯는 사회 서로가 비판하고 욕하는 사회가 끝나는 것은 우리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고 "좋은 것을 더욱 좋게"한마음 한뜻으로 이룩하여야 할때가 왔다. 우리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말이다. 여기 우리 "한마당 계"의 역할을 다시 한번 앞세워 자랑하여 보고싶구나!

김 국 영
(충남 금산군 금산읍 아인리)

始祖 平陽君 墓祀 嚴修

음복하는 자리에서는 金昇淵 한화그룹 會長의 계속적인 獻誠에 讚辭도 보내고

지난해 11월23일은 음력10월1일로서 우리 順天金氏의 始祖이신 平陽君의 墓祀日이시다。

제사 전일부터 全國各地에서 모인 종친들의 情談이 밤 늦도록 이어졌다。

제사 당일은 날씨가 제법 차가운데도 耕雲(大淵宗親의 雅號)종친은 금년에도 어김없이 參禮하여 모든 종친들을 감동케하였다。

墓祀는 任實의 東俊종친의 執禮唱笏로시작하여 初獻官에 大淵 亞獻官에는 善貞 終獻官에는 行烽 교수가 分定되고 大祝에는 仁川의 仁厚종친의 告祝으로 始終敬虔한 분위기속에 諸般節次를 마치였고 山神祭역시 獻官에 圭南 祝官에는 河鍾 執禮는 泰源宗親이 分定進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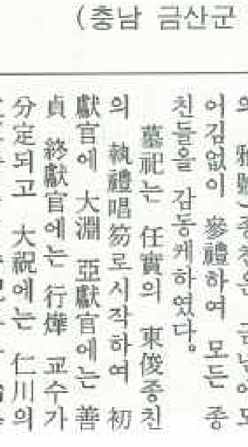
飮福하는 자리에서는 金昇淵한화그룹會長(本會顧問)이 私財를 들여 管理人住宅과 샤워장 축사와 倉庫등을 洋屋으로 新築中에 있었음으로 자연히 話題에 올라 座中에는 종친들의 讚辭가 끈일줄을 몰랐다。

中央宗親會에서는 炳鎰常任顧問이 參禮하고 香料로 金一封를 奉呈하였다。

(一無)

永登浦 漢方病院

理事長 金 喆 俊



順天金氏中央宗親會 理事
持平公派宗會 會長
永登浦漢方病院 理事長
平和統一諮問委員
永登浦區防衛協議會委員
法務部更生保護名譽會長
永登浦警察署行政諮問委員

서울 永登浦區 永登浦洞 4가 153-1
電 話 : 678-8225
678-0848

中央宗親會를 訪問하신분

1996년 2월 29일 현재

本 中央宗親會 宗報編輯室을 수시로 찾아 오셔서 慰勞하시고 激勵하여 주신 宗親여러분과 來賓 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宗報編輯室)

姓 名	住 所	姓 名	住 所
金光熙	서초구 방배동	金深淵	종로구 종로6가
金釘祿	성동구 성수2가	金東大	서초구 서초2동
金哲永	고양시 마두동	金文燮	송파구 가락동
金深淵	서울시 종로구	金相善	서초구 잠원동
金仁德	서울시 노원구	金 弘	종로구 동숭동
金仁培	日本國 東京都	金榮培	麻浦區 西橋洞
金志衡	서울 성동구	金仁厚	인천시 서구
金圭星	서울 강남구	金深淵	종로구 종로
金深淵	서울 종로구	金聲七	도봉구 창4동
金都淵	인천 서구	金商應	고양시 내유동
金光熙	서초구 방배동	金孝南	김포군 고촌면
金秉熙	강남구 역삼2동	金溶運	종로구 중학동
金浩淵	성북구 동선동	金永日	안산시 월피동
金釘祿	성동구 성수2가	金景南	안산시 선부동
金仁厚	인천시 서구	金重吉	중구 북창동
金 弘	종로구 동숭동	金尤喜	도봉구 창3동

牧使公墓地 賣却에 따른 移葬公告事件 法院 判決로 完全한 復舊登記

牧使公派宗會(會長 金深淵)에서는 牧使公과 察訪公의 墓所가 있는 高陽市 城石洞 山 57番地 120坪에 對한 所有權移轉登記抹消(1995年3月24日字 宗報 第10號參照) 訴訟에서 原告 勝訴判決로 1995年 9月 26日字로 順天金氏 牧使公派 宗中 代表 金深淵 名義로 所有權移轉登記됨으로서 完全히 原狀復舊되였다。

앞으로 如斯한 不法事例가 再發되지 않도록하는 豫防次元에서 그 全貌를 報道하여 宗親들의 參考로 삼고저한다。

原告는 順天金氏 牧使公派宗會代表 金深淵이고 被告는 1、金樹淵。2、金성일로서 原告宗中은 順天金氏 14代祖 牧使公 金粹을 中始祖로 하는 宗中으로 墳墓管理를 맡은 金商喆은 公簿上의 所有權名義를 信託하였는데 金商喆이 死亡하자 그 아들인 被告(1) 金樹淵이 1958年10月5日字로 相續하고 이를 被告(2) 김성일에게 1994年8月31日字로 賣渡하였다。

위 김성일은 都下日刊新聞에 위 墳墓2基를 1994年11月3日까지 移葬하라는 公告를 냄으로서 直系後孫은 물론이고 全國宗親이 아연 경악하게되였다。

多幸이 會長 深淵 總務 都淵宗親의 獻身的인 努力으로 1995年8月25日 原告 勝訴判決로 仝年 9月26日字로 所有權 移轉登記를 마치니 생각지 않은 費用이 四,五百万원이 들었다하나 不幸中 多幸이라 하겠다 如斯한 不法事例가 앞으로 再發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一無)

宗報 紙齡十號를 自祝하는 行事로

前號 (1~10호까지의 宗報 無償配布)

本報 〈順天金氏宗報〉가 1990年9月24日字로 創刊된지 5年의 세월이 흘러 지난해 3月 24日字로 紙齡 100호를 發刊하게 되였음을 自祝하며 本報가 우리 宗門의 敎養과 弘報事業에 寄與한 業績을 높이 讚揚하면서 지금까지 수시로 珠玉같은 原稿를 보내주신분과 編輯에 同參하여 오신 編輯委員여러분, 그리고 發刊費를 特別 協贊하여주신 宗親들에게 紙面을 通하여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本會에서는 1호에서 10호까지를 한데모아 保管하고저하는 宗親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겠다는 記事를 1호에 게제 公告하였던바 이를 환영하고 要請하신 종친이 많이 있어 지난 年末까지 빠짐없이 무상으로 보내드린바 있습니다。(一無)

宗報編輯委員會

個人 名義의 垈950坪 勝訴判決로 襄景公 宗土로 移轉登記 推進中

襄景公의 位土인 廣州郡 草月面 西霞里 165 垈950坪(金在錫 名義)을 宗中名義로 所有權 移轉登記하는 宗事에 지금까지의 經過와 앞으로의 展望을 간추려서 報告함으로써 宗親들의 궁금증을 풀어두라고자 합니다。

襄景公祖의 位土인 廣州郡 草月面 西霞里 165 垈950坪(金在錫名義)에 對하여 土地 所有權 移轉登記節次 履行 請求 訴訟을 1994年 2月 16日字로 水原地方法院 城南支院에 提出하고 여러차례의 변론을 거친후 1994年 5月25日字로 原告(順天金氏中央宗親會 會長 金鍾植) 勝訴 判決이 났는데 그 內容인즉 변론 종결 날자는 1994年4月27日로서 被告(金在錫)는 原告에게 京畿廣州郡 草月面 西霞里 165 垈950坪에 關한 名義信託解止를 原因으로한 所有權移轉登記節次履行請求訴에 對하여 原告의 이 事件請求가 理由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判決한다는 勝訴判決을 받았읍니다。

名義移轉登記는 기왕의 3件의 假押留된것이 있어서 그 抹消節次上 多少의 애로 事項이 있어서 遲延되고 있으나 金光熙法務士가 맡아서 推進중에 있으니 未久에 完全한 登記移轉이 될것입니다。

이 事件에 鍾植會長, 載俊常任副會長님이 수고하셨다。 (一無)

永昌合板 株式會社
鮮昌産業(株) 合板代理店

社長 金 槿 熙

中央宗親會 副會長
仁川宗親會 會長
宗睦會 會長
襄景公派 翊贊公十八代孫

仁川廣域市 南東區 九月洞 1116-3
電話 : (032) 435-4848
(032) 424-1173
FAX : (032) 435-4848

高陽市의 城石里 察訪公(壎)墓前 石物 非登錄 文化財로 指定

(編輯室)

本會의 東昌 仁熙幹事 [illegible]고 炳鎰常任顧問一行은 1995年10月4日 高陽의 牧使公派宗中 深淵會長님과 都淵總務任의 案內로 高陽市 城石洞所在 察訪公(諱壎)의 墓所를 省墓하는 機會를 가졌다。

이번 나들이를 計劃한것은 本報第十號에 揭載 報道한바 있어 直系後孫은 물론이고 全國宗親의 關心事로 떠 올랐던 察訪公과 윗대인 牧使公(諱粹濂)두분의(墓地120坪) 賣却에 따른 移葬公告 問題가 말끔히 解決된 直後인지라 더욱 뜻깊은 行事였다。

牧使公에 對한 記事는 昨年 3月24日字로 本報 第四號에 神道碑 除幕式 記事로 詳細히 알려드린바 있어 여기에서는 省略하고 아래 代인 察訪公의 墓所의 現況과 이번의 高陽文化院에서 非登錄文化財로 指定된 墓前의 石物을 重点 記述하고저 한다。

愼齋 金壎公은 壯毅 汝물公의 先考로서 雅號가 愼齋인데 通訓大夫 省峴縣察訪을 지내시고 贈職이 崇政大夫 議政府左贊成이시며 일직이 金思齋正國門下에서 修學하시니 天稟이 孝悌溫良하시고 篤志學文하셨는데 墓所는 配位 貞敬夫人 信川康氏와 함께 九耳洞 先考墓下에 合폄이시다。

封墳앞으로는 床石과 魂遊石이 配置되여 있으며 그 右側으로는 花岡石의 墓碑가 서있는데 高가 4尺5寸 幅 1尺5寸 두께 5寸 規模로 座台를 갖추고 있으며 碑의 前面에는 「贈 崇祿大夫 議政府左贊成兼知義禁府事行 通訓大夫 省峴縣察訪、號愼齋、順天金公 壎之墓라 새겨져 있다。

床石 앞 三尺地点에 있는 二具의 童子石像이 세워져있는데 보기드문 뛰어난 作品으로 고개를 지긋이 들고있으며 입고 있는 옷의 옷고름이 분명하게 부드러운 曲線을 이루고 어깨위로 흐르는 線등이 매우 自然스럽게 表現되여있다。 童子石은 總 三尺半의 크기이며 材質은 大理石인데 各部分別로 一部 毁損이 되여서 아쉬웁다。

童子石의 左右에는 望柱石 文人石이 配置되여 있는데 文人石은 總높이가 7尺4寸이고 文人石의 笏은 턱에서 떨어져있고 홀을 쥔 손가락의 細密한 彫刻이 돋보이는 作品으로서 童子石과 함께 이번 非登錄文化財로 指定하게된 重要한資料가 된것으로 推測된다。

비록 非登錄文化財이긴하나 하마터면(墓地移葬云云) 큰 禍를 입을뻔 했던터에 宗會 任員들의 獻身的인 노력으로 말끔히 原狀復舊가된 뒤라 더욱 뜻깊다 하겠다。

이번 事件을 앞으로 位土管理에 愼重을 期하라는 일깨움으로 삼을것이며 深淵會長님과 都淵總務님의 勞苦를 새삼 높이 致賀하는바이다。

(一無)

김심연 회장과 김도연 부회장

비지정문화재 앞에서

第十一回 대학생 교양강좌 안내

중앙종친회에서는 지난 86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교양강좌를 금년도 第十一回수강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전국의 종친 여러분께서는 二세 교육사업의 일환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順天金氏의 자녀들이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第十一回대학생교양강좌에 참석코자 하는 희망자는 중앙종친회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욕실과 샤워장, 화장실들을 남자용, 여자용으로 신축하고 여자숙소도 신축하였음

■강좌예정일:8월중순(5일간)
■강좌장소:전남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방축동 始祖齋室(同源齋)
■강사:宗親中에서 전원위촉(대학교수, 법관, 학자등)
■강의제목: 族譜의 연원과편집내용, 家禮상식, 顯祖의略史, 생활법률 및 일반상식, 기타
■수강신청자격:順天金氏로서 남녀 대학생과 동등의 학력소지자(고교를 졸업한 자 포함)
■입소자 결정:七月五日까지 접수하고 30명 정도 선발
■입소예정일:추후 서면으로 통지함
■수강료:무료(숙식비와 교재비等 모든 경비를 중앙종친회에서 전담함)
■기타:수강수료증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개별우송함
■문의사항:전화(02)718-0529또는 서면문의 할것

順天金氏中央宗親會
宗務部

순금회

代表會務委員 金弘泰
首席會務委員 金喆俊
財務會務委員 金東洙
涉外會務委員 金溶運
總務會務委員 金亨民
監事 金相轍

外孫奉祀 三百餘年 墓表세워
信義와 崇祖의 標本으로
甘東山 朴氏 山所의 來歷

(編輯室提供)

利川市 大月面 郡梁3里 샛말(間村)에서 東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야트막한 구릉 일대가 山122번지의1로 「甘東山」이라 일컫는데 여기에 北向으로된 古墳 한基가 있으니 이 墓所가 바로 고령박씨와 회산 감씨의 유택으로서 약 三百년전에 造成되였는데 郡梁里는 우리 順天金氏 寧州公派의 集姓村이자 世居地로 炳潤 利川宗會長의 說明에 따르면炳字 行列의 十三代祖이신 順陵參奉彥信公으로부터 뿌리내려 살아왔으니 줄잡아 三 年前의 일로서 參奉公의 孫子 贈 戶曹參判 益輝公의 聘父인 高靈朴氏 銓公과 配位 檜山 甘氏 兩位분의 墳墓이다.

朴銓公 兩位분의 生卒이나 行蹟等은 알길이 없으나 無男獨女인 따님을 우리 順天金氏 益輝公에게 出嫁시키고 死後를 사위와 따님에게 당부하셨다한다. 그후에 聘父와 聘母가 世上을 뜨니 사위인 金公 內外분은 그 信義를 지켜 이곳 福德之地에 禮制에 따라 安葬하고 春秋로 時祭를 精誠껏 올리니 이것이 지금까지 지켜져 내려오는 外孫奉祀의 始初이다.

歲月이 흘러 사위인 金參判公 內外분 또한 世上을 뜨시니 그 아래 代로 계속 踏襲되여 三百餘年을 綿綿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니 이는 비단 順天金氏 門中뿐만이 아니라 여느 氏族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일이 아니리요, 이러한 아름다운 事實이 앞으로 子孫萬代에 이여질것을 의심치 않으며 位土라야 金明載가 獻誠한 墓地 山一八二0坪뿐인데도 墓所의 管理와 奉祭祀등을 利川宗會(會長 金炳潤)이 앞서서 매번 음력 十월 十一일 묘전에서 제사를 올려오고 있다.

甘氏墓를 쓴후부터 이 一帶의 地名이 「甘東山」으로 되여 지금도 「감동묘」 또는 「감동산 박씨묘」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옛부터 내려오는 말에 「머느리의 밥은 앉아서 먹고 딸의 밥은 서서 먹는다」고 하지만 「딸 하나 낳아서 잘 기르면 열 아들 부럽지 않다」는 말과 같이 앞으로도 외손인 順天金氏가 올리는 제사를 즐겁게 흠향하시길 바라는 마음간절하다.

이 墓所 앞에 「高寧朴公銓之墓 配 檜山 甘氏祔」라 새겨진 야트막한 墓表가 세워질것이니 이토록 아름다운 事緣과 順天金門이 信義를 지키며 崇祖하고 孝道하는 家門임을 본보기로 삼고저 金炳鎰이 床石과 함께 墓碑를 세울 계획이다.

人事

理事에 任함 (1996、1、31日字)
金東柱
金溶運
金喆俊
金吉柱

代議員
金弘泰
金鳳熙
金赫載
金錫胤
金斗淵
金東鮮

理事에 任함 (1996、1、31日字)

代議員에 任함 (1996、1、31日字)
金于載
金商根
金瑞淵
金商倫

順天金氏中央宗親會

始祖墓祀參禮記

우리들은 다같은 順天金氏이면서도 以北에 정든 故鄕을 두고온 失鄕民(永洙,相澄,行燁,명환)입니다.

해마다 陰曆 10月1日 順天의 始祖 時祀日이 가까워 오면 鐵原公孫은 故鄕대신 本鄕의 順天을 남달리 憧憬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時祀日 1개월정도 앞두고 웬만한 宗親은 順天엔 한번 가봐야지 가봐야지 벼르면서도 湖南千里 생소한 길의 車便도 마땅치 않고 生業에 쪼달리다 보면 선뜻 나서기가 쉽지않아 그만 주저앉기가 일수입니다.

昨年 時祀日만 하더라도 行燁 檀大敎授가 한번 찾아가 보자고 始動을 걸어 熏源兄任이 따라 나서서 歡喜의 本鄕 順天 始祖墓를 찾아가니 낯서른 以南宗親들이 처음들 왔다고 그토록 반기며 祭典에 亞獻酌을 드리는 榮光을 안겨줌에는 너무나 感激하였던 일 두고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후에도 몇번 만날적마다 내년에는 한번 더 가보자던 薰源兄任께서 지난여름 그만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故鄕길이나 진배 없었던 順天本鄕길이 처음겸 마지막 길이 될줄이야 꿈엔들 생각했으랴.

浮雲自體本無實 生死去來亦如然 『뜬구름은 본래 실이 없거늘 사람이 나고죽고 가고오는것이 또한 같다고 한 말일까』 오히려 늘 病患中에 계시다던 一無(炳鎰)族淑께서 建康한 모습으로 今秋時祀에 謁見하게 됨에 너무 기뻣던 마음을 詩로 엮어보았습니다.

감히 詩라고 말할 수 없는 詩句이나마 失鄕民의 뼈아픈 感情을 헤아리면서 耽讀하시기 바랍니다.

1995年 陰 10月1日

江素(명환)謹敍

始祖墓祀參拜紀行詩

고향을 잃은 우리들 네사람은
오직 본향을 찾고저 하는 마음 늘 간직하고
호남 천리길 차를 달리는데
늦가을 창공엔 기러기때 비껴가네

몇해를 두고 그리던 고장인데
추위에 떠는 노송은 향기조차 아니뿜어
옛성터의 수천은 흔적이 없고
다만 이산중에 인연은 할아버지 묘가 있을뿐

지난해 오늘 이 묘앞에
훈원형님이 아헌작을 올렸는데
오늘 이자리에 불참한 것을 슬퍼하노라
고운구름은 쉬이 흩어진다고 누가 말했던가

풍문에 일무아저씨가 병환중이라는 말을 듣고
일무아저씨 참면목을 알길이 없었는데
오늘 이자리에 뵙게되니 정말 기뻣소
송죽은 옛과 같이 겨울에도 항상 푸르다네

1995年(乙亥) 舊10月1日

鐵原公派 명환 頌詩

金浦宗親會

會長 金孝南

中央宗親會 理事
錢湖精米所 代表
襄景公派 判事公 18代孫
경기도 金浦郡 高村面 錢湖里
電話 〇三四一－八六－五九九三－四

副會長 金億南
金志應

總務財務 金秀益

監事 金德南
金永南

白岩 相舜公의 一週忌 追慕함.

宗報編輯委員長 金 炳 鎰 軒 無 一

남력으로 지난 11月 5日은 白岩 相舜公의 一週忌이다。

내가 百岩 相舜族叔을 마지막으로 만난것은 1994年 8月10日頃으로 기억하는데 내가 그때 서울大學校病院 內科病棟에 十餘日째 入院하여 治療보다는 主로 檢診에 主力하여 결국은 「악성종양」으로 判明된 무렵이라 心身이 몹시 쇠약해 있을 무렵인데 뜻하지 않게도 병원 복도에서 白岩族叔을 만난것이다。그때 벌써 白岩族叔도 병색이 역역하고 몹시 피곤한 기색이였는데 그분 역시 난치병으로 長期 섭생을 要한다며 우울한 表情을 지었다。

내가 忠貞公 재실 建立宗事에 크게 힘을 쓰시니 고맙다고 말씀하시니 族叔은 나더러 宗事에 너무나 수고가 많다며 빨리 건강을 되찾아야 한다는등의 말씀과 함께 저번의 宗報에 까지 揭載報道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주고 받았을뿐 「차」 한잔 나누지 못하고 헤어진후로 그해 12월6일 族叔은 이내 入寂하시고 이제 一週忌가 지난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으니 그때의 모자를 비스듬이 눌러 쓰시고 초췌한 안색이지만 정답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생생하여 감회가 자못 새롭다。

墓碑와 世葬碑도 세우고

白岩族叔은 天性이 어질고 착하였으며 매사에 最善을 다하고 부지런하여 家勢를 일구웠고 항상 나의 일보다 남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으로 社會事業에도 남다른 關心과 奉仕를 아끼지 않았으며 特히 佛心이 돈독하여 全國寺刹에 온갖방법으로 淨財를 施主 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서울 城北洞에 있는 水月庵을 손수 이룩하여 施主함으로써 그 域內에 功德碑를 세워 功德을 讚揚하고 있으며 조상을 받들고 겨레를 사랑하는 마음씨가 두터워 順天金氏中央宗親會의 創立初부터顧問으로 계시면서 宗親會發展에 寄與하신 바 크며, 特히 公의 十八代祖이신 忠貞公 齋室 新築宗事에는 淨財를 千萬원이나 獻誠하는등 남다른 功獻을 하니 中央宗親會에서는 이 事實을 宗報에 揭載報道하여 全國宗親으로 부터 뜨거운 칭송을 받았다。

이제 一週忌를 맞이하여 公이 착하고도 아름답게 살다가신 행적을 追慕하며 後孫들이 精誠을 다하여 墓碑를 세우고 次男 俊熙등은 故人의 遺志를 받들어 生前에 못다하신 世葬碑를 세워 이곳을 省墓하는 子孫들이 先祖들의 「직함과 행적 그리고 墓所의 所在地」등을 한눈에 알수 있도록하는 案內標識인 世葬碑를 웅장하게 세우니 이는 古今에도 그 例가 없는 일이나 公의 祖上을 받드는 한 방책이고 子孫들의 孝心의 깊이를 가늠케하는 表象이다。

이제 白岩 相舜族叔은 이승의 百八煩惱는 홀홀 털어버리시고 蓮花台에 올라 永生極樂하시기를 合掌祈願합니다。(一無)

枕泉堂公 遺蹟碑와 允下亭을 들러보고

族孫 炳鎰 謹記

昨年 11月1日(음9月8日) 華南(佑永大父님의 雅號) 大父님의 案內를 받으며 誠甫仁熙와 함께 聞慶市 농암에 도착하니 大井公園의 松林이우거진 곳에 大德이라는 食堂이있어 一行은 다리도 쉴겸 점심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鄕土色 짙은 음식에 女主人 또한 親切하여 모처럼 맛있는 食事를 즐겼는데 내가 飯酒가 過한것도 아닌데도「지팡이」를 식당에 두고 나왔으므로 두분의 편잔을 면할길이 없었다。

이번 行步는 枕泉堂公의 遺蹟碑와 允下亭을 둘러보고 다음날 重九日에 月潭祠 茶禮에 參禮함이 主된 目的이다。

농암면 종곡리 道發山麓 允下亭 바로옆에 세워진 枕泉堂 性義公의 遺蹟碑는 最上級 烏石을 碑身으로 하고 龜台에 龍冠을 얹고 둘레에 欄干을 設置하였는데 그 精巧하고도 웅장함이 비할데가 없더라。

公의 玄孫인 柄斗族叔이 쓴 碑文에 보면 枕泉堂公께서는 諱啣이 性義요 字는 君執이고 枕泉堂은 公의 雅號이시다。

丙申年 先考 大範公과 先妣平山申氏사이에 獨子로 태어나시니 忍百堂公이 九代祖이시고 15代祖가 襄景公이시다。

公은 天稟이 淸廉潔白하시고 孝誠이 至極하시며 崇祖思想이 透徹하셨는데 癸未(1883年) 4月上丁에 旺陵洞에 산다는 金秉玉이란 者가 公을 찾아와서 敢請하기를 道發山 先塋局內에 墳墓를 쓰겠다하거늘 公은 一言之下에 이를 단호히 拒絶하였던바 同年 4月9日 그들은 多卒作黨하여 公의 祖考(諱澤壽公) 墓所에 强制로 勒葬함으로 次男과 같이 이를 제지하니 그들은 완力으로 行悖를 부려 급기야는 傷處만 입고 來募不敵으로 禁葬치 못하였다。그러나 公께서는 그들의 權力에게 일러 擊錚伸寃의 上訴文을 올리게하니 皇帝께서 訴狀을 보시고 漢城府에 命하여 合年 11月24日 邑官立會下에 移葬하였는데 그 後에도 여러번 허위誣告를 한바있으나 그때마다 모두 無效化되었다。이 事件이 完全勝訴하기까지 無慮八個星霜에 걸쳐 모든 難關과 逆境을 무릅쓰고 오로지 先塋을 지키신 枕泉堂公을 爲始하여 長房이신 濼在, 次房 擧在, 季房 靑坡 聲在公의 崇祖思想을 기리는 碑文은 그 句句節節이 보는이로 하여금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한다。

允下亭은 鍾谷里 道發山麓에 1947年 11月에 枕泉公의 崇祖思想을 기리고저 後孫들이 宗論을 모아 建立한 亭子로서 「鳴冤天聽하여 幸蒙允下하였다」하여 亭名을 「允下亭」이라 하였는데 竣工後 年久歲深하여 累次 補修하였으나 恒常 滲漏誤塗를 免치 못하여 1986年9月16日 크게 重修하였다。

亭子 담장안에는 한그루의 탱자(수果)나무가 서있는데 아마도 亭子建立當時에 심은 것으로 推測되니 어림잡아 五十年의 樹令을 지니고 幹枝 또한 茂盛하여 담장밖에서도 노랗게 익은 탱자가 흐드러지게 열려있고 東쪽의 一角門을 열고 들어가니 亭庭에 떨어진 탱자 또한 마당가득히 깔려 있어 그 數가 不知其數였으니 이 글을 쓰며 느낀것은 枕泉堂께서는 五代를 내리 獨子로 내려오셨는데 아래대에와서 三兄弟를 두시고 그후로 子孫이 繁昌하여 탱자수효 만큼이나 퍼졌으니 老鼠下田形이 아니고 「젊고도 확기찬 쥐가 밭으로 내려오는形局」이라며 웃었다。

우리一行는 瀟陽의 宗宅에 들렀다가 瞹流亭과 瀟陽書院을 들러보고 忍百堂公山所를 省墓한다음 날씨가 제법 차갑고 진눈깨비까지 내림으로 서둘러 乘均族叔宅에 가서 따끈한 茶로 몸을 녹이고나서 鵲泉에 가서留하고 다음날 月潭祠 茶禮에 參禮한後 歸京길에 올랐다。(一無)

임금님의 행차길 막고 징을 쳐서 억울함을 訴하고 八年에 걸친 山訟 崇祖의 丹心으로 一貫

祝 刊發號二十第報宗

顧問 金鍾鎬
常任顧問 金炳鎰
宗報編輯委員長 金福山
〃 金大淵
〃 金喆熙
〃 金仁培
〃 金采源
〃 金道淵
〃 金致傑
〃 金昇淵
〃 金椿集
〃 金行燁
〃 金達賢

故 吳明哲(요안나) 할머님의 一週忌를 追慕함

지난 二月二十四日(토요일) 고 오명철(吳明哲) 할머님의 一週忌를 맞이하여 성공회(聖公會)대성당에서 정철범 주교의 미사집전으로 경건하고도 축복받은 一週忌 추모미사를 올렸다.

이 자리에는 자부이신 강가락당을 위시하여 막내자제인 종식 종친회장과 한화그룹의 승연회장 등 유족여러분과 친지들이 참석하여 고인의 유덕을 기리며 일행은 공주군 정남면에 있는 묘소에 성묘하고 헌화하였다.

오씨 할머님은 보람찬 일세기동안 축복받은 한평생을 사시다가 드디여 작년 二월 二十五일 열두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일백세의 천수를 누리시고 학처럼 승천하시니 이제 그 자상하고도 청초하신 자태는 뵈올길이 없으나 할머님이 일백세의 고령에도 불구하시고 1993년9월17일 중앙종친회를 찾아오셔서 종친회 종사원들을 위로 격려하셨던 일과 작년 2月27日 장례에 따른 기사를 종보 7호와 10호에 상세히 게재보도 한바있어 전국종친의 가슴깊이 새겨져 있읍니다.

할머님은 해주 오영호공의 따님으로 20이 갓넘은 나이에 익찬공파 가곡공의 十二代주손인 재민공(在民公)과 결혼하여 슬하에 四男一女를 두시니 이들이 하나같이 출중하여 밖으로는 국위를 선양하고 안으로는 국가경제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문중도 빛나게 하였으니 위대하고도 장한어머니로서 문중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아오셨습니다.

할머님이 생전에 우리 종친회에 오셔서 하신 말씀중에 「여러종친들을 상대하다보면 어려움이 많겠지만 모든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화목으로 맺고 풀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요안나)할머님의 명복을 빌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부디 명복을 누리소서.

(族孫) 炳鎰

생전의 오명철 할머니

金昇淵 顧問 同源齋 管理人住宅 新築工事 竣工入住

同源齋 都監·金炳鎰

金昇淵(한화그룹 會長) 顧問은 建築費全額을 自負擔으로 지난해 九月에 着工한 同源齋의 管理人住宅과 화장실, 샤워場, 倉庫, 畜舍등 네 棟을 착공한지 五개월만인 二月十五日 말끔히 준공하여 관리인 가족이 입주하였다.

이로서 관리인 주택문제가 해결되고 食水가 不足하여 제사때나 교양강좌등 식구가 많을때에 식수난을 겪었으나 이제 그 염려가 해소되었고 여름철 특히 강좌때에 화장실이 구식이라서 불결하고도 불편하였으나 이번에 男女·區分하여 水洗式으로 신축하였으며 「샤워장」이 없어서 곤란하였으나 이것 역시 남녀가 따로따로 사용하도록 되였으니 크게 개선되였다.

또한 전의 화장실이 재실 정면에 위치하여 미관상 좋지않았으나 이를 철거하고 돌 담장을 쌓으므로써 환경이 개선되고 미관을 살렸으며 주차장 역시 넓직히 마련되여 주차난도 완전 해결되였다.

그동안 都監과 監役여러분은 수시로 現場에 가서 감독을 하여 한치의 하자도 없이 施工함으로서 또하나의 宿願事業인 大宗事를 마무리 하였다.

金昇淵 顧問님의 조상을 받드는 마음씨에 새삼 感謝하는 바이다.(一無)

동원재 관리인 주택

月潭祠 秋享 參禮記

(編輯室)

지난 11月 1日(陰九月九日)은 月潭祠 秋享日이다.

경북 문경시 가은읍 작천리에 있는 부조묘 月潭祠에서 전국각지에서 모인 후손들이 禮法에 따라 가을 茶薰이 嚴修되였는데 中央宗親會 仁熙宗務간사의 執禮로 初獻官에는 宗孫인 載錫亞獻官에는 任實에 東英氏 終獻官에는 九潭에 東鮮宗親의 順으로 獻酌하고 燦淵宗親의 告祝으로 모든절차를 마쳤다. 月潭祠는 고려 정주(定州)목사 여산군 휘 유정(惟精)공의 차자이신 좌명공신 좌의정이시며 아호가 월담(月潭)이요 諡號는 襄景公이시며 君號는 平陽府院君이신 휘 承公의 祠堂이다. 月潭祠는 不祧祖로서 원래는 宗孫의 第宅옆에 모셔야하나 中間에 宗家가 옮겨다니다보니 大廟를 移建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른것이다.

올해는 도유사님이 불참하셨고 별유사님은 신양으로 참여치못하였으나 행사만은 아무 결례없이 차분하게 잘 치루었다.(一無)

월담사 추향 헌관

유공 (株)京畿에너지

■ 直營注油所
고속주유소:안산시 양상동 201-2
TEL:(0345)87-5145~6
노들주유소:안산시 선부동 187-3
TEL:(0345)499-5114~5
동산주유소:안산시 선부동 151-4
TEL:(0345)498-5181~2
장하주유소:안산시 장하동
TEL:(0345)86-5506
포동주유소:시흥시 포동 1-34
TEL:(032)695-5522~3
사동영업소:안산시 사동 1485-6
TEL:(0345)419-8301~2

代表理事 社長 金永日

中央宗親會 青年幹事
襄景公派 御史公十七代孫

本社:京畿道 安山市 仙府洞 151-4
電話:(0345) 401-5151~2
(0345) 498-5181~2
휴대폰:(011) 254-2548
呼出:(015) 275-8301
FAX:(0345) 498-5182

順天金氏宗報

本宗報는 順天金氏 中央宗親會員 家口當 1부씩 無償으로 配布합니다.

發行人 金 鍾 植
宗報編輯委員長 金 炳 鎰

發 行 所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서울 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46-1(태평빌딩)
電話 : 02-718-0529

題 字
無 影 金 仁 厚
<中央宗親會 理事>

화합과 단결 피땀어린 노력으로 金昇淵 會長 금탑산업 훈장 수장

세의 축하를 받는 환한 모습

김호연 회장의 꽃다발 증정광경

中央宗親會 金昇淵顧問(한화그룹 會長)은 한국표준협회와 공업진흥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21회 전국품질경영대회에서 二년연속 최고의 성적을 올려 금탑산업훈장을 받은바 있다.

1 1月24日 밤 玄岩빌딩 28층 특설연회장에서 축하연을 열었는데 우리 中央宗親會 임원진도 초청이 되어 여러분이 참석하여 축하하였고, 本會 鍾植회장님은 금탑산업훈장 수장을 축하하는 뜻에서 「德崇業廣」의 額子를 만들어 炳鎰 常任顧問이 직접 전달토록 하였다. 또한 金昊淵宗親도 祝賀의 꽃다발을 昇淵會長에게 주며 형제가 굳은 악수로서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함을 모든 종친과 임직원들에게 보임으로서 우뢰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와 참석자들을 감동케 하였다.

한화그룹의 금탑산업훈장 수장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이다. (一無)

宗親會에서 祝賀額子를 傳達하는 모습

玄山 金科元 博士

本中央宗親會副會長金科元博士(神經外科病院長)는 지난해 八月八日 回甲을 맞이하여 華甲紀念文集刊行委員會(會長 景鐵)가 華甲紀念全集을 同年 11月10日字로 刊行하였는데 그 內容을 대충 살펴보면 祝畵와 揮毫에 畵報를 겯드렸고 景鐵委員長의 刊行辭、筆讚、祝詩 賀辭、金科元詩作品 칼럼 그리고 人間金科元論과 文學金科元論등 金博士님의 燦爛하고도 節度있는 人生歷程의 단면을 溫和하고도 銳利한 筆致로 엮은 後學들의 指針書이다. 지금도 光州廣域市 醫師會代議員會議長과 韓國醫政會副會長 社團法人光州佛敎能仁會會長、延世大學校醫科大學外來敎授 그리고 大韓癩管理協會 光州全南支部長등을 맡아 活躍하고 계시는 金博士님의 華甲을 祝賀하며 家庭에 恒常 즐거움이 가득하시고 앞으로 더욱 精進하시기를 祈願합니다. (一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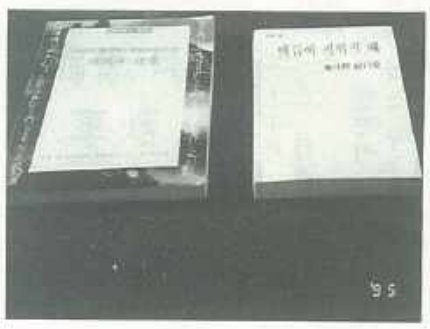
榮光의 두얼굴

惺雲 金斗熙 博士

惺雲 金斗熙敎授 頌壽紀念文集 刊行委員會는 金敎授의 甲年을 祝賀하는 뜻으로 紀念文集을 刊行하였는데, 紀行文 「매듭이 지워질 때」와 隨筆集인 「사랑의 이정표」、무병장수를 위한 「건강만들기」 講座集으로 環境과 健康論說集인 「달구벌 杏林의 메아리」등을 펴냈다.

金博士는 旣爲 여러 편의 著書를 냈으니 그 代表的인 것 만도 環境衛生學、公衆保健學概要、豫防醫學、公衆保健學、學校保健의 實際、長壽食品과 健康環境、保健啓蒙講演集、生態學人口汚染、健康學術論文集 外에도 隨筆集으로 孤獨한 燈台등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은 著書를 펴낸바 있다.

金博士님의 華甲을 祝賀하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활약을 期待하는 바이다. (一無)



公 告

順天金氏中央宗親會 第七期 定期總會 開催 公告

會則第十二條二項에 依據 一九九六年 第七期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 함을 公告합니다. (個別通知省略)

一九九六年三月二十四日

順天金氏中央宗親會
會長 金 鍾 植

一、日 時 : 一九九六年 四月 二十一日(日) 正午(十二時)
二、場 所 : 서울特別市 中區 長橋洞 五五番地 玄岩빌딩 二十八層 한 화 그 룹 大 講 堂
▼連絡處 : 中央宗親會
▼電話 : 七一八~0五二九 番
▼전철2호선·을지로입구역에서 二00m거리 을지로2가 중소기업은행 三一빌딩앞
三、參席範圍
一、中央宗親會 全任員및 代議員
二、全國地域宗親會 任員과 뜻있는 宗親
四、議 案
一、業務報告
二、第七期 收入支出決算報告
三、第八期 豫算案 審議
四、任員 補選의 件
五、會則一部改正의件
六、其他 討議 事項

全國地域宗親會長께서는 順天金氏宗報가 到着되는대로 宗親 및 全任員께 널리 連絡하여 많이 參席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